

# 카타르, 친환경 스마트공원 의욕적 추진

2016년 6월 3주차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5월 16일, [경제] 카타르, 60개 스마트 공공 공원  
건설 계획

[참고자료]

Arabian Business, The Peninsula

지난 5월 14일, 카타르의 지방자치·환경부는 카타르 전역에 60개의 스마트 공공 공원을 건립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카타르가 추진하는 스마트 공원이란, 스마트 교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것의 일환이다.

## 도하, 스마트시티 우수도시 선정

하니웰 社가 ‘하니웰 스마트 빌딩 지수’ 평가를 위해 넬슨 리서치와 함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카타르의 수도 도하(Doha)는 환경친화적(Green), 안전(Safe), 생산적(Productive) 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스마트 시티 목표달성 우수도시로 선정됐다. 아부다비, 두바이, 쿠웨이트시티 등 기타 중동 도시들이 100점 만점에 평균 48점을 기록한 데 반해, 도하는 이보다 22점 높은 70점을 기록했다.

도하는 카타르의 향후 국가개발 방향을 보여준다. 카타르는 국가개발을 위한 ‘비전 2030’을 세우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카타르 정부는 건물 건설과 관련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며, 세계 지속가능성 평가 시스템(Global Sustainability Assessment System)이 제시한 기준을 준수한다. 또한, 개발자, 설계자, 계약자, 이용자 등

이 건물 설계 단계에 직접 참여한다.

## 혁신적 아이디어와 친환경 미래공원 조성

새로 건설되는 스마트 공공 공원은 기존 공원과는 전혀 다른 형태일 것으로 전망된다. 카타르의 지방자치·환경부는 스마트 공원은 스마트 기술과 혁신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보급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함마드 알 쿠리(Mohammed Al Khoori) 지방자치·환경부 공공 공원부서 이사는 “우리는 스마트 공원에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높은 기온과 모래바람 등 카타르의 척박한 기후에 견딜 수 있는 새로운 식물·꽃·나무 등을 포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카타르 정부는 스마트 공원 건립 과정에 스마트한 기술, 혁신적인 아이디어, 친환경 및 재활용 제품을 활용하는 기업과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스마트 공공 공원에 무료 인터넷 서비스 등의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할 계획이다. 카타르 정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각각의 스마트 공원이 독특하며, 매력적인 공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LED 전력 시스템, 태양광 기술 등도 활용될 예정이다.

## 카타르 정부, 스마트 환경 육성에 적극적

카타르 정부는 현재 ‘하트 오브 도하(Heart of Doha)’ 복합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도하 중심부에 총 55억 달러를 투자해 최첨단 녹색 환경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60개의 스마트 공원은 향후 4~5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카타르 정부는 이처럼 친환경, 안전, 지속가능한 스마트 국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자료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이슈분석은 지역 전문가로부터 별도의 자문을 구한 후 등재되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성 : 한 큰 술      자문 : 홍 성 민(중동경제연구소 소장)